

2025 국민이 함께하는 저작권 글 공모전(시)

제목

부끄러운 액자

깡마르고 조그마한 국민학교 계집아이
공부 빼곤 잘하는 게 없어 공부 빼고 머 하나 잘하고 싶어서
선생님께 친구들에게 이것도 잘 한다 알리고 싶던 차
학교에서 마침 시 쓰기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

이때다 싶어 며칠간 끙끙 기똥찬 시를 쥐어짜내 보지만
입 안에서만 맴맴 돈다
마지막 밤, 운명처럼 시가 써졌다.
아니, 시를 베.껴.썼.다. 중학생 오빠가 휘갈겨 놓은 공책에서

다음날 시 대회에서 전교 2등을 거머쥐고
모두의 주목을 몽땅 받아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

다 지나간줄 알았던 그 사건, 학년이 끝나는 날
선생님은 복도 벽에 붙은 시 액자를 집으로 가져가라 하신다.
1등도 떼어가고, 3등도 떼어가는데, 2등 시는 끝내 벽에서 못내려왔다.

졸업하는 그 날까지, 학교를 떠나는 날까지
시 액자가 걸린 복도를 걷는 일은
깡마른 계집애를 더 깡마르게 했다.
스스로 주는 벌을 받게 하는 그 복도
누구도 모르지만 나는 아는 벌